

## 취업 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 특성\*

이윤주\*\*·진미정\*\*\*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자본 이론을 적용해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을 알아보는 것이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 여성 284명, 비취업 여성 287명에게 수집한 자료로 이들의 사회자본 특성과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 그리고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은 취업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경제적 지원과 돌봄 지원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취업한 여성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 변수는 돌봄 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유의하게 예측했으며, 사회관계망 관련 변수들의 영향은 기혼 여성이 동원하고자 하는 사회자본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혼 여성의 선택이 돌봄 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반영됨을 시사한다. 또한 기혼 여성의 친족 관계의 중요성과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

**핵심단어:** 사회자본, 자녀 양육, 취업 여부, 기혼 여성

### I. 서론

개인과 가족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관계망 구성원의 자원을 동원한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학교 선배에게 구직 정보를 얻고, 영업사원은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아는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한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또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기혼 여성과 친구가 되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자원을 동원한다. 이와 같은 행동은 기혼 여성이 자신의 사회관계망과 관

\* 본 연구는 주저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이며,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 yoonjoo84@gmail.com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 mchin@snu.ac.kr

계망 구성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때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으로 관계망의 크기, 구성원과의 관계 등이 알려져 왔고(Bost, Cox, Burchinal and Payne, 2002; Salzinger, 1990), 기능적 특성으로는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등의 사회적 지지 기능과, 간섭 및 규제 등 사회적 통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혜·이미리, 1996; 이은혜, 1997; Levitt, Weber and Clark, 1986).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학력이나 경제수준 등 이들이 가진 자원이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이 얼마나 풍부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하다. 사회관계망의 구조가 동일해도, 구성원의 자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지 혹은 통제를 받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자원을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상술한 연구에는 사회적 지지가 관계망 구성원에서 개인에게로 전달되는, 일방향적인 설명이 주를 이룬다는 한계도 있다. 실제 생활에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제공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대학생이나 영업사원처럼, 개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망 구성원의 지원을 스스로 구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기존의 시각으로는 이와 같은 개인의 역량에 주목하기 어렵다.

사회자본 이론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이다. 사회자본이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타인의 자원에 접근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Lin, 2001). 개인의 선택과 능력을 강조하는 린(Lin, 2001)의 사회자본 이론을 따르면, 자녀 양육기에 있는 기혼 여성을 기존의 사회관계망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회자본 연구는 주로 취업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접근하고 동원하는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다(이성균, 2006; 이정규, 2004; Lai, Lin and Leung, 1998; Sprengers, Tazelaar and Flap, 1988). 취업 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 및 지위의 차이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여성의 사회자본이 주목받긴 했지만, 여성의 사회자본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박기남, 2002). 그 결과 취업 시장에 속해 있지 않거나,

취업 시장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자녀 양육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접근하고 동원하는 여성의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 여부에 따라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을 알아본다.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은 지역사회와 가족 지원 서비스 구축, 자녀 양육 및 보육문제, 일-가족의 양립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족 현안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이 주제는 기존 사회자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연구 대상과 주제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족 현안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리하면,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이론에 따라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연구에서 사회자본이 주목할 가치가 있는 주제임을 제시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사회자본의 이론적 배경

1980년대부터 사회관계망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 온 린은 사회자본을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타인의 자원에 접근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Lin and Dumin, 1986; Lin and Ensel, 1989; Lin and Bian, 1991; Lai et al., 1998; Lin, 2001). 이는 사회자본을 연구한 다른 학자들(Bourdieu, 1986; Coleman, 1988)이 내린 정의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기반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그는 개인들의 사회적 교환 과정을 일종의 투자로 생각했고, 이를 통해서 타인의 자원에 접근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즉 사회자본을 얻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았다. 이 정의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용학, 2004).

사회자본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타인 혹은 타인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 경험 등과 같은 자원을 뜻한다. 이는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자원은 사회의 구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Lin, 2001).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란,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중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특정 자원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이나 행동의 영향을 받는다. 제한적인 관계망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의 분포를 잘 알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은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이자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Lin, 2001).

이 연구에서는 린의 이론에 따라 사회자본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사회자본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그 사회자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Foley and Edwards, 1999). 또한 자녀 양육기에 기혼 여성은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할 일이 특히 많아진다. 이들의 사회자본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지원의 방향을 보다 면밀하게 논의할 수 있다.

개인이 접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개인의 인적자본 및 경제자본이다. 이 두 자본은 사회구조 상에서 개인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인의 인적자본과 경제자본이 많을수록,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의 상류층에 위치하며 상류층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가능성이 높다. 즉, 개인의 인적자본, 경제자본이 많을수록 접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도 많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실증연구에서 개인의 인적자본과 경제자본은 사회자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넌 린, 2004; 이재열·남은영, 2008; Boisjoly, Duncan and Hofferth, 1995; Lai et al., 1998).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 1983)는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알고 지내는 사람(acquaintance)과 형성한 관계를 통해 더 다양한 사회자본에 접근,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약한 관계의 강함'이라고 부른다. 한편, 네덜란드의 실직자들이 어떻게 사회자본을 통해 재취업해 가는가를 분석한 연구(Sprengers et al., 1988)에서는 아는 사람(acquaintance)보다는 장시간 교류해 온 친인척을 통해 더 많은 사회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사회의 구직 과정에서 친족 관계의 중요성을 밝혀낸 연구(Bian, 1997)도 이와 같은 선상에 있다. 이는 '강한 관계의 강함'이라 한다.

'약한 관계의 강함'이나 '강한 관계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이 사회자본에 접근, 동원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이 새로운 직업 정보를 얻고자 사회자본에 접근, 동원할 경우에는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 1983)가 주장한 것처럼 약한 관계를 동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을 얻고자 할 때에는 두 사람 간의 높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친족

처럼 강한 관계를 동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Lee, Ruan and Lai, 2005).

셋째, 사회관계망의 구성도 접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성이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경우 더 많은 자원에 접근,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toloff, Glanville and Bienenstock, 1999). 자신과 성별이나 취업 상태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더 넓은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질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관계망이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관계망보다 더 다양한 사회자본에 접근, 동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개인이 사회자본에 접근할 수 있어야 그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구직 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본 연구(Lai et al., 1998)에서 이 두 사회자본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기혼 여성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영향 요인을 파악할 때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모델에 포함하였다.

기혼 여성이 사회자본을 동원하는 계기는 다양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박지원, 1985; 이은혜·이미리, 1996)를 바탕으로,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계기(경제적 지원, 돌봄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 제공)로 나누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혼 여성이 각각의 경우에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09년 6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을 확정하였다. 같은 해 8월, 전국에 거주하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기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취업·비취업 기혼 여성 각각 300명에게 리서치 전문회사를 통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00명의 기혼 여성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이 중 부실하게 응답했거나 연령이 지나치게 높은 사례 등을 제외하여 총 571명의 기혼 여성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lt;표 1&gt;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집단		전체 (N=571)	취업여성 (N=284)	비취업여성 (N=287)	t/ $\chi^2$
연령	평균	28.86 (3.40)	29.25 (3.28)	28.47 (3.47)	2.768 **
교육 수준	고졸이하	197 (34.50)	77 (27.11)	120 (41.81)	13.648 ***
	대졸이하	374 (65.50)	207 (72.89)	167 (58.19)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대	100 (17.51)	27 (9.51)	73 (25.44)	8.593 ***
	200만원 대	172 (30.12)	59 (20.77)	113 (39.37)	
	300만원 대	146 (25.57)	86 (30.28)	60 (20.90)	
	400만원 이상	153 (26.80)	112 (39.44)	41 (14.29)	
	평균	306.63 (153.46)	358.98 (175.95)	254.82 (104.33)	
취업 형태	비취업	287 (50.26)	-	287 (100.00)	
	전문직	65 (11.38)	65 (22.89)	-	
	사무직	165 (28.90)	165 (58.10)	-	
	판매직	14 (2.45)	14 (4.93)	-	-
	생산직	7 (1.23)	7 (2.46)	-	
	자영업	18 (3.15)	18 (6.34)	-	
	기타	15 (2.63)	15 (5.28)	-	
거주지	대도시	248 (43.43)	129 (45.42)	119 (41.46)	0.910
	대도시이남	323 (56.57)	155 (54.58)	168 (58.54)	
자녀수	평균	1.45 (0.58)	1.42 (0.54)	1.48 (0.60)	-1.429

주: 1) \*\*  $p < 0.05$ , \*\*\*  $p < 0.01$

2) 단위는 세, 명, 만원이며, ( )의 수치는 표준편차, %임.

## 2. 조사 내용

### 1)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란, 개인이 가까이 알고 지내는 관계라고 보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을 뜻한다. 이름 추출법(name generator)을 이

- 1)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시 사용했던 조사구의 90%를 표집틀로 하여 실시된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 2009)의 가구 분포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297만 2000원,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0세(표준편차 4.5),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어머니는 52.8%였다. 이와 비교할 때, 이 연구의 표본은 평균 연령이 어리고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은 기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표본이 모집단을 정확히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용하여 ‘자녀와 배우자를 제외하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분(여동생, 직장동료 등)’을 떠올리게 한 후,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 10명까지 관계망 구성원의 이름(혹은 가명)을 적도록 했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이름(혹은 가명)을 보면서 성별, 연령, 관계, 취업 형태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어서 관계망 구성원의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원효중, 1997; 유석춘·장미혜·전상인·정병은·최우영·최종렬, 2008; Campbell and Lee, 1991; Ryan, Sales, Tilki and Siera, 2008)를 바탕으로 인적자본, 경제자본, 건강수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인 근접성(Willmott, 1987; Ryan et al., 2008에서 재인용), 자녀 양육 경험, 자녀 양육 정보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 의미 있는 자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계망 구성원이 각각의 자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표 4>와 같은 4점짜리 리커트 척도의 선택지에 답하도록 했다<sup>2)</sup>. 6개의 질문에 대해 기혼 여성이 보고한 값의 총점은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을 뜻한다. 가까이 지내는 관계망 구성원이 1명이고, 이 구성원의 인적자본, 경제자본의 양은 알지 못하며 다른 네 가지 자원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다면, 이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총량은 4점이 된다. 한편 가까이 지내는 관계망 구성원 10명이 모두 6개 영역의 자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 연구 대상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총량은 2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음을 의미한다.

## 2)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란,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중에서 개인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의미한다. 상술했던 것처럼, 기혼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회자본을 동원하게 되는 네 가지 경우(경제적 지원, 돌봄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 제공)를 선정하여 각 영역 당 세 가지 서로 다른 사회자본의 동원 계기를 물어보았다. 이 세 가지 질문 사이에는 상대적인 서열이 존재한다. 관련 전공 교수 1인, 박사 후 연구원 1인, 박사과정 1인이 네 가지 영역 간의 배타성과 각 영역 내 질문들 사이의 서열성 등을 검토하여 12개 질문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질문의 내용 및 신뢰도와 분포는 <표 2>에 제시하였다.

2)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인적자본과 경제자본을 묻는 질문은 유석춘 외(2008)의 질문지 문항과 선택지를 활용하였다.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 두 문항에만 ‘모름’이라는 선택지가 포함되었다.

<표 2>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변수의 구성

경제적 지원 영역	문항	· 자녀에게 가끔 용돈을 줄 수 있는가? · 자녀에게 장난감이나 옷을 사 줄 수 있는가? · 자녀 때문에 급히 필요한 큰 돈(300만원 정도)을 빌릴 수 있는가?
	신뢰도	0.827
	범위	0 - 492
	왜도/첨도	-0.596/ 0.460
돌봄 지원 영역	문항	· 자녀를 데리고 예방접종하러 갈 수 있는가? · 자녀를 하루 정도 돌볼 수 있는가? · 자녀를 2-3일 정도 봐 줄 수 있는가?
	신뢰도	0.830
	범위	0 - 383
	왜도/첨도	-0.358 / 0.161
정서적 지원 영역	문항	·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가? ·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공감해 줄 수 있는가? · 자녀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가?
	신뢰도	0.815
	범위	0 - 519
	왜도/첨도	-0.388 / 0.483
정보 제공 영역	문항	· 자녀 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가? · 자녀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의사/상담가를 알려줄 수 있는가?
	신뢰도	0.813
	범위	0 - 436
	왜도/첨도	-0.284 / -0.162

주: 1)왜도와 첨도 값은 로그변환한 종속변수에서 산출되었음.

사회관계망 구성원 중 각각의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체크하도록 했다. 기혼 여성이 체크한 구성원이 가진 자원의 양을 더한 값은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이 된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1명도 없을 경우, 총점은 0점이 된다. 반면 한 영역 내 3개의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10명의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 모두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경우, 총점은 720점(3개 질문×10명×24점)이 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3> 취업 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 크기 및 구성원의 특성

분석변수		취업여성 (N=284)	비취업여성 (N=287)	t-값
사회관계망의 크기		5.447 (2.954)	5.059 (2.64)	1.653
성별	남성	0.774 (1.197)	0.494 (1.009)	3.018
	여성	4.672 (2.570)	4.564 (2.432)	0.516
연령	20대 이하	1.788 (2.085)	2.003 (2.086)	-1.230
	30대	2.014 (1.973)	1.623 (1.935)	2.387 **
	40대 이상	1.644 (1.330)	1.432 (1.180)	2.017 **
기혼여성 과의 관계	시가 친척	0.866 (1.196)	0.689 (0.991)	1.916
	친정 친척	1.725 (1.456)	1.721 (1.360)	0.035
	친구	1.440 (1.857)	1.554 (1.924)	-0.719
	이웃	0.345 (0.811)	0.533 (0.970)	-2.513 **
	직장 동료	0.792 (1.256)	0.184 (0.727)	7.063 ***
	자녀 친구의 부모	0.147 (0.581)	0.236 (0.904)	-1.401
	교우	0.035 (0.235)	0.066 (0.363)	-1.211
	기타	0.095 (0.422)	0.073 (0.371)	0.658
	전업 주부	1.922 (1.366)	2.365 (1.801)	-3.315 ***
취업 형태	전문직	1.024 (1.488)	0.752 (1.136)	2.453 **
	사무직	1.197 (1.544)	0.616 (0.985)	5.347 ***
	기타 직종	1.088 (1.311)	1.104 (1.263)	-0.153
	비경제활동	0.214 (0.537)	0.219 (0.512)	-0.107

주: 1) \*\* p<0.05, \*\*\* p<0.01  
 2) 단위는 명이며, ( )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 IV. 연구 결과

##### 1.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의 특성

###### 1) 기혼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특성

<표 3>은 연구 대상자의 사회관계망 크기와 구성원의 특성을 취업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취업 여성이 평소 가깝게 지낸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평균 5.447명, 비취업 여성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평균 5.059명이었다. 여성 구성원이 남성 구성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남성 구성원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박기남, 2002; McPherson and Smith-Lovin, 1982)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성의 사회자본 혹은 사회관계망에는 특정 성별, 즉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취업 여성의 관계망에는 비취업 여성의 관계망보다 30대, 40대 이상의 구성원이 많았다. 취업 여성의 평균

&lt;표 4&gt; 취업 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자원 분포

분석변수		취업여성 (N=284)	비취업여성 (N=287)	t-값
교육 수준	중졸 이하	0.563 (0.827)	0.620 (0.856)	-0.806
	고등학교 졸업	1.964 (1.860)	1.881 (1.837)	0.538
	대학교 졸업	2.415 (2.092)	2.170 (2.086)	1.400
	대학원 이상	0.214 (0.550)	0.125 (0.389)	2.235 **
	모름	0.288 (0.857)	0.261 (0.688)	0.421
경제 수준	저소득층	0.704 (1.387)	0.742 (1.250)	-0.343
	중산층의 하층	2.257 (2.016)	2.216 (2.009)	0.243
	중산층의 상층	1.964 (2.067)	1.581 (1.779)	2.373 **
	고소득층	0.183 (0.589)	0.153 (0.533)	0.633
	모름	0.338 (1.142)	0.365 (1.132)	-0.292
건강 수준	아주 건강하지 않음	0.084 (0.375)	0.080 (0.308)	0.152
	건강치 않은 편	0.788 (1.052)	0.682 (0.819)	1.339
	건강한 편	3.721 (2.640)	3.473 (2.373)	1.180
	아주 건강함	0.852 (1.563)	0.822 (1.623)	0.223
자녀 양육 돌봄 경험	경험 없음	1.080 (1.587)	0.836 (1.114)	2.130 **
	거의 없음	0.750 (1.031)	0.630 (1.018)	1.391
	적은 편임	1.345 (1.401)	1.365 (1.417)	-0.176
	많은 편임	2.271 (1.735)	2.226 (1.712)	0.309
근 접 성	차로 2시간 이상	0.940 (1.404)	1.142 (1.609)	-1.603
	차로 1시간 내외	2.926 (2.377)	2.407 (2.318)	2.638 ***
	도보 30분 이내	1.327 (1.555)	1.334 (1.644)	-0.052
	함께 살고 있음	0.253 (0.682)	0.174 (0.552)	1.525
자녀 양육 정보	거의 알지 못함	0.996 (1.420)	0.773 (1.024)	2.149 **
	많이 알지 못함	1.531 (1.473)	1.547 (1.487)	-0.124
	많이 아는 편임	2.186 (1.573)	2.108 (1.516)	0.608
	아주 많이 알고 있음	0.732 (1.149)	0.630 (1.172)	1.047

주: 1) \*\* p<0.05, \*\*\* p<0.01

2) 단위는 명 또는 점이며, ( )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연령이 더 높고, 직장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혼 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취업 여성은 비취업 여성보다 가깝게 지내는 이웃과 전업주부가 적고, 직장 동료와 전문직·사무직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직장인지 지역사회인지에 따라서 기혼 여성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친정 친척은 기혼 여성의 관계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표 4>을 통해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취업 여부에 따라 알아보기로 한다. 취업 여성의 관계망에는 비취업 여성의 관계망보다 고학력자, 중상층, 원거리 거주자, 자녀 양육 및 돌봄 경험 혹은 관련 정보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표 3>에서 유추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취업 여

부에 따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이는 관계망 구성원이 가진 자원의 차이로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기혼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최소값은 4점이며 최대값은 240점이다. <표 5>를 보면 취업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평균 81,718점, 비취업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평균 75,561점이었고 범위는 12점에서 185점이었다. 취업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2) 기혼 여성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특성

<표 5>는 기혼 여성이 네 가지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취업 여부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취업·비취업 여성 모두 정서적 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146,500점, 138,500점으로 가장 많았으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취업 여성이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118,710점으로, 비취업 여성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106,100점)보다 많았다.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보다 중상층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돌봄 지원 영역에서 취업 여성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79,154점, 비취업 여성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63,132점으로, 다른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비해 가장 적었다. 자녀를 직접 돌보는 일과 관련되어 사회자본을 동원하는 것이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했다. 이후 분석에서는 기혼 여성이 접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표 5> 취업 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접근 및 동원 가능한 사회자본 특성

분석변수	취업여성 (N=284)	비취업여성 (N=287)	t-값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	81,718 (44,106)	75,561 (41,309)	1.721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118,710 (80,713)	106,100 (66,569)	2.038 **
돌봄 지원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79,154 (59,799)	63,132 (47,187)	3.552 ***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146,500 (93,383)	138,500 (87,735)	1.053
정보 제공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90,619 (65,281)	81,676 (67,998)	1.603

주: 1) \*\* p<0.05, \*\*\* p<0.01

2) 단위는 명 또는 점이며, ( )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 2.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이 접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회귀식 계산을 위해, 앞서 살펴본 관계망 구성원의 특성 및 자원 변수들은 사회관계망 구성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퍼센트 변수로 환산하였다. 또한 종속 변수를 로그 변환하고 잔차를 분석하여 정규성 및 동분산성 가정에 부합하도록 했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VIF 계수는 2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가정을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김두섭·강남준, 2000).

### 1) 기혼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6>은 기혼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관련 변수를 모두 통제했을 때,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100만원 대인 집단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작았다.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접근할 수 있는 타인의 자원도 적은 것이다. 이는 경제자본과 사회자본 사이에 정적 관계가 나타난 선행 연구(서지원, 2006, 2008; 이재열·남은영, 2008; Lai et al., 1998)와도 일치한다.

사회관계망 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기혼 여성과 성별이 다르거나 약한 관계, 즉 비친족 관계인 구성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도 많았다.

<표 6> 기혼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s.e.
<b>&lt;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gt;</b>		
취업 여부(1=비취업)	0.030	0.043
교육수준(1=대졸이상)	0.065	0.0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대	-0.167	0.066 **
200만원대	-0.070	0.056
(기준=400만원 이상)		
300만원대	-0.024	0.056
<b>&lt;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 특성&gt;</b>		
남성의 비율	0.008	0.001 ***
약한 관계의 비율	0.006	0.000 ***
취업자의 비율	0.003	0.000 ***
<b>&lt;상 수&gt;</b>	3,678	0.076 ***
N	540	
F	21.030 ***	
Adj. R-square	0.229	

주: 1) \*\* p<0.05, \*\*\* p<0.01

이 역시 사회관계망에 자신과 이질적인 사람이 있을 경우 더 많은 사회자본에 접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 연구(Stoloff et al., 199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관계망 내 취업자 비율이 높을수록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직접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자본을 획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관계망 구성원이 가진 자원의 양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자본의 양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동일하다고 할 때, 필요한 자원에 따라서 기혼 여성이 동원하게 되는 사회자본의 영향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의미하는 사회관계망의 크기 변수가 통제변수로 포함된다.

## 2) 기혼 여성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7〉은 기혼 여성이 경제적, 돌봄 지원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한 것이다.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대한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면, 앞의 〈표 5〉와 달리 관련 변수를 통제하자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사회관계망에서 약한 관계, 즉 비친족 관계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아졌다. 바꿔 말하면 관계망 내 강한 관계, 즉 친족 관계인 사람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Lee et al., 2005)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시장에서와는 다른 형태의 경제적 교환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를 전제하는 친족 관계의 구성 비율이 높을 때 동원력이 더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 취업자, 중상층 이상인 사람과 같이 경제자본을 가진 구성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아졌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와 관련된 일로 경제적 지원을 구할 때, 건강하거나 자녀 양육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관계망 구성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의 두 번째 회귀식에서 주목할 결과는 관련 변수를 통제하고 나서도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보다 돌봄 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연구(박기남, 2002)에서 지적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박기남(2002)은 취업 여성의 경우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에

<표 7> 기혼 여성이 경제적 지원 및 돌봄 지원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적 지원 영역		돌봄 지원 영역		
	b	s.e.	b	s.e.	
<b>&lt;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gt;</b>					
취업 여부(1=비취업)	0.026	0.045	-0.126	0.057 **	
교육수준(1=대졸이상)	0.015	0.051	-0.004	0.06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대	0.042	0.071	-0.141	0.091
(기준=400만원 이상)	200만원대	0.028	0.059	-0.068	0.074
	300만원대	-0.052	0.058	-0.037	0.073
<b>&lt;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 특성&gt;</b>					
남성의 비율	0.002	0.001	0.005	0.001	
약한 관계의 비율	-0.008	0.001 ***	-0.004	0.001 ***	
취업자의 비율	0.002	0.001 **	-0.001	0.001 ***	
<b>&lt;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 자원&gt;</b>					
대졸이상자의 비율	0.002	0.001	0.000	0.001	
중상층 이상의 비율	0.003	0.001 ***	0.000	0.001	
건강한 사람의 비율	0.003	0.001 ***	0.004	0.001	
자녀양육 및 돌봄 경험자의 비율	-0.000	0.001	0.004	0.001 ***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져 사는 사람의 비율	0.000	0.001	-0.001	0.001	
자녀양육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의 비율	0.002	0.001 **	0.002	0.001	
<b>&lt;통제변수&gt;</b>					
관계망의 크기	0.156	0.008 ***	0.094	0.010 ***	
<b>&lt;상 수&gt;</b>					
	3.345	0.145 ***	3.250	0.183 ***	
	N	531		505	
	F	38.380 ***		13.030 ***	
	Adj. R-square	0.514		0.263	

주: 1) \*\* p<0.05, \*\*\* p<0.01

있기 때문에, 비취업 여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친족 관계를 통해서 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회자본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 돌봄과 관련해서 사회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취업 여성이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되는 것이다.

비취업 기혼 여성에 초점을 둔 해석도 가능하다. 비취업 기혼 여성은 자신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기 때문에, 자녀를 만나질에서 하루 정도 맡아줄 수 있는 사회자본을 취업 여성보다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스스로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영유아기 자녀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패턴으로 인해 자녀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8> 기혼 여성이 정서적 지원 및 정보 제공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서적 지원 영역		정보 제공 영역		
	b	s.e.	b	s.e.	
<b>&lt;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gt;</b>					
취업 여부(1=비취업)	0.048	0.042	-0.026	0.050	
교육수준(1=대졸이상)	0.065	0.047	0.132	0.057 **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대	-0.164	0.066 **	-0.047	0.079
(기준=400만원 이상)	200만원대	-0.057	0.055	-0.048	0.464
	300만원대	0.029	0.054	-0.051	0.434
<b>&lt;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 특성&gt;</b>					
남성의 비율	-0.001	0.001	-0.000	0.001	
약한 관계의 비율	0.001	0.000	0.101	0.001	
취업자의 비율	0.000	0.000	-0.001	0.001	
<b>&lt;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 자원&gt;</b>					
대졸이상자의 비율	0.000	0.000	0.000	0.001	
중상층 이상의 비율	0.001	0.001 **	0.000	0.001	
건강한 사람의 비율	-0.000	0.001	0.001	0.001	
자녀양육 및 돌봄 경험자의 비율	0.003	0.001 ***	0.004	0.001 ***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져 사는 사람의 비율	-0.001	0.000	-0.002	0.001 ***	
자녀양육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의 비율	0.004	0.001 ***	0.007	0.001 ***	
<b>&lt;통제변수&gt;</b>					
관계망의 크기	0.144	0.007 ***	0.140	0.009 ***	
<b>&lt;상수&gt;</b>					
	3.453	0.134 ***	2.838	0.167 ***	
N	539		511		
F	36.130 ***		28.060 ***		
Adj. R-square	0.494		0.443		

주: 1) \*\* p<0.05, \*\*\* p<0.01

또 다른 해석은, 돌봄 지원과 관련해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적기 때문에 기혼 여성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업 주부를 선택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09)에 따르면, 조사 당시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비율은 27%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만약 일을 하던 기혼 여성이 다른 사람의 자원을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 약한 관계인 구성원의 비율이 낮을수록, 취업자 비율이 낮을수록, 자녀양육 및 돌봄 경험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돌봄 지원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시간과 돌봄 경험, 아이 어머니와의 신뢰 등 자녀 돌봄이라는 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8〉은 정서적 지원, 정보 제공 영역에서 기혼 여성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이다. 첫 번째 결과부터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100만원 대인 집단이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더 적었다. 경제자본과 사회자본 사이의 정적 상관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이어서 관계망 내 증상층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 및 돌봄 경험자 비율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의 비율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아졌다.

자녀 양육 정보를 얻기 위해 기혼 여성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고졸 이하보다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 여성이 정보를 얻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 양육 및 돌봄 경험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의 비율이 높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원거리 거주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정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사/상담가)에 대한 정보는 기혼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정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이 접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특성과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두 가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다. 상술한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여성이 돌봄 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대한 결과는 취업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이들의 선택을 반영한다. 취업 여성은 비취업 여성에 비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시간과 에너지가 적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강한 관계나 자녀 양육 및 돌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여, 돌봄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반면 비취업 여성은 자녀 양육을 전담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을 확보할 필요성이 적고 기회도 부족하다. 특히나 자녀가 어릴 경우, 어머니들은 기관 양육보다는 개인 양육을 선호하여(서문희 외, 2009) 자발적으로 전업 주부를 선택하

는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질을 개선하는 현재의 보육정책과 더불어, 비취업 여성이 돌봄 지원을 얻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 자신의 자녀와 다른 가족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 놀이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품앗이 육아 활동 등이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취업 기혼 여성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에서 친족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에 대한 선행 연구(오선주, 1992; 원효중·옥선화, 2002; Marsden, 1987)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들의 관계망에서 친족 관계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여기에서도 친족 관계는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제적 지원 및 돌봄 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녀의 일로 큰 돈을 빌려야 하거나 하루 정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구해야 한다면, 기혼 여성과 상당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강한 관계, 즉 친족 관계를 통해 사회자본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셋째, 기혼 여성이 동원하고자 하는 사회자본의 유형에 따라 사회관계망의 특성이 서로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경제적 지원과 돌봄 지원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 특성 및 자원 변수들이 고르게 예측하고 있는 반면, 정서적 지원 및 정보 제공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 자원 변수들만이 주효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이는 기혼 여성이 동원하고자 하는 사회자본의 영역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방향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자본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약한 관계이거나 취업 중인 사람들보다는 근거리에 거주하며 자녀 양육 경험과 정보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름 추출법에 따라 기혼 여성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위주로 사회관계망을 측정했다. 이 방법은 친밀한 사람을 위주로 관계망을 떠올리게 하여(Campbell and Lee, 1991), 느슨한 유대를 유지하는 관계망 구성원의 영향력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한계는 연구의 표본이 모집단에 비해서 연령이 어리고 학력과 소득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본의 한계를 감안하여, 연구 결과를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하겠다. 후속 연구에서는 접근 및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 중에서 기혼 여성들은 이를 실제로 동원하고 있는지, 동원한다면 그 유형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접근 및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접근 및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사회자본의 정도와 그 효과가 정적 관계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현재 영유아 보육 지원의 개선 방향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업 여부에 따라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에 차이가 있다는 점,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이 가진 다양한 특성들이 동원하고자 하는 사회자본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은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등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두섭·강남준 (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나남신서.
- 김용학 (2004)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 넨 린(Nan Lin) (2004) “신뢰의 사회적 맥락” 이은죽 (편) 《신뢰: 지구촌 시대의 사회적 자본》 집문당, 23-63.
- 박기남 (2002) “관리직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성별 직무 분리” 《한국사회학》 36(6): 109-135.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 (2009)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 보고서.
- 서지원 (2006) “중고령기 건강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4(10): 133-144.
- \_\_\_\_\_ (2008) “중년기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상대적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15-332.
- 오선주 (1992) “사회계층별로 본 가족의 주요 사회망, 사회망과 가족의 참여 및 구직과 사회망” 《대한가정학회지》 30(3): 177-191.
- 원효중 (1997) 《도시 핵가족 주부의 사회관계망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효종·옥선화 (2002) “가족의 사회관계망 유형화 연구 -도시 핵가족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49-164.
- 유석춘·장미혜·전상인·정병은·최우영·최종렬 (2008) 《한국의 사회자본: 역사와 현실》 백산출판사.
- 이성균 (2006) “한국 자영업자의 사회적 자본과 소득수준” 《한국사회학》 40(5): 178-206.
- 이은혜 (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5(3): 31-45.
- 이은혜·이미리 (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61-78.
- 이정규 (2004) “사회적 네트워크와 구직과정 및 성과” 한국노동연구원 (편) 《제5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이재열·남은영 (2008)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인맥의 특징과 중간집단 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7): 178-214.
- Bian, Y. (1997) “Bringing Strong Ties Back In: Indirect Ties, Network Bridges, and Job Searches i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3): 366-385.
- Boisjoly, J., Duncan, G. J. and Hofferth, S. (1995) “Access to Social Capital” *Journal of Family Issues* 16(5): 609-631.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 G. Richardson New York: Greenwood Press.
- Bost, K. K., Cox, M. J., Burchinal, M. R. and Payne, C. (2002) “Structural and Supportive Changes in Couples’ Family and Friendship Networks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2): 517-531.
- Campbell, K. E. and Lee, B. A. (1991) “Name generators in surveys of personal networks” *Social Networks* 13(3): 203-221.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Foley, M. W. and Edwards, B. (1999) “Is It Time to Disinvest in Social Capital?” *Journal of Public Policy* 19(2): 141-173.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_\_\_\_\_ (1983)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 Sociological Theory* 1: 201-233.
- Lai, G., Lin, N. and Leung, S.-Y. (1998) "Network resources, contact resources, and status attainment" *Social Networks* 20(2): 159-178.
- Lee, R. P.L., Ruan, D. and Lai, G. (2005) "Social structure and support networks in Beijing and Hong Kong" *Social Networks* 27(3): 249-274.
- Levitt, M. J., Weber, R. A. and Clark, M. C. (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310-316.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 N. and Dumin, M. (1986) "Access to occupational through social ties" *Social Networks* 8(4): 365-385.
- Lin, N. and Ensel, W. M. (1989) "Life Stress and Health: Stressors and Resour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382-399.
- Lin, N. and Bian, Y. (1991) "Getting Ahead in Urban Chin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3): 657-688.
- Marsden, P. (1987) "Core Discussion Networks of America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1): 122-131.
- McPherson, J. M. and Smith-Lovin, L. (1982) "Women and Weak Ties: Differences by Sex in the Size of Voluntary Organiza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4): 883-904.
- Ryan, L., Sales, R., Tilki, M. and Siera, B. (2008)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The Experiences of Recent Polish Migrants in London" *Sociology* 42(4): 672-690.
- Salzinger, S. (1990) "Social Networks in Child Rearing and Child Development" *Annals of the Network Academy of Science* 602(1): 171-188.
- Sprengers, M., Tazelaar, F. and Flap, H. D. (1988) "Social Resources, Situational Constraints, and Reemployment" *Netherlands Journal of Sociology* 24: 98-116.
- Stoloff, J. A., Glanville, J. L. and Bienenstock, E. J. (1999)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The role of social networks" *Social Networks* 21(1): 91-108.

## Social Capital of Married Women: Variations by Employment Status

*Yoonjoo Lee · Meejung Chin*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accessed and mobilized social capital of married women with young childre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wo types of social capital in terms of their employment status. Factors related to accessed and mobilized social capital are also investigated. The subjects are 571 married women (284 employed and 287 unemployed) who have children younger than 5 years old. Their networks are revealed to show different composition and resourc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respective employment status. No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in accessing social capital depending on the employment status. However, working women are capable of mobilizing more social capital for economic resources and child-care assistance than non-working women. The employment status is significant only in mobilizing social capital related to child-caring assistance. The effects of variables related to social networks of married women differ according to the types of resources sought for. The choices of married women on the employment status and child-rearing are observed in the findings of the ability to mobilize social capital for child-care assistance. The importance of kin ties and various social services for building social capital are discussed.

**Key words:** Social capital, Child-rearing, Employment status, Married women